폐렴으로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태가 악화됐다 다시 호전된 것으로 알려진 9일 오후 김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취재진과 만나 김 전대통령의 병세를 전한 뒤 병동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장외투쟁 끝까지 간다"

미디어악법 원천무효 전국 순회 '성공적' 자평

2라운드 돌입 … 내부 전열 정비 투쟁수위 높여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목표로 장외투쟁을 벌였던 민주당이 전국 순회를 한 차례 마치고 서울로 복귀했다.

폭염 속에서도 1차 장외투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내부 평가를 마친 민주당은 다음 주 전국순회 2라운드에 돌입, 미디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위원회'를 발족, 서울과 경기도 수원, 안산 등 수도권에서 장외투쟁을 시작, 부산, 대구를 거쳐 광주, 전남지역과 충북 청주에서 홍보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서명운동 한마당' 행사를 펼친 뒤, 9일에는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문화제를 통해 미디어법 원천무효 장외 집회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2차 장외투쟁에 돌입, 이달 말까지 전북 전주, 울산, 포항, 대전 등 전국을 돌면서 여론몰이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1차 전국순회 장외투쟁 결과와 관련, 민주당 우윤근 수석원내부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심을 살펴보니 언론악법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특히, 폭염 속에서도 민주당 내부의 투쟁 의지가 넘치고 있는데다 민심의 호응도도 높아 2차 장외집회에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이달은 물론 9월 정기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세균 대표는 이날 장외투쟁 시한과 관련, 정 대표는 "지금 투쟁동력이 넘친다"며 "일단 헌재 판결 전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기국회 등원론과 관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한 것은 물론 한나라당의 대화 제의와 관련, "지금 국회가 닫혀 있고 여당 의원들이 외국으로 놀러간 판에 어디서 누구와 대화하자는 것인가"라며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기극에 우리가 놀아날 이유가 없으며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강경 기조에 따라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 여야 경색 정국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2차 장외투쟁을 앞두고 내부 투쟁 동력을 유지하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당직개편을 통해 우상호 전 의원 등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을 지도부에 전면 배치하면서 강경 투쟁 의지를 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의 장외 투쟁을 통해 내부 전열을 정비, 10월 재보선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민심의 호응이 예상외로 좋은 상황인데다 민주당의 투쟁 의지도 더욱 더 타오르고 있어 장외 집회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장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DJ 건강' 괜찮나요

국민들 심각한 우려 속 쾌유 기원

민주당은 9일 오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병세가 다시 호전됐다는 소식에 민주당 지도부는 안도감을 나타냈으나 노령이라는 점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쌍용차사태 관련 야4당 대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뒤 예정대로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한 문화제 참석을 위해 충남 대천해수욕장으로 향하면서 김 전 대통령의 상태를 보고 받고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전날 김 전 대통령을 병문안했던 정세균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소식에 "걱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변인도 "어려운 시기에 김 전 대통령이 힘을 내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며 "민주당을 넘어 국민 모두가 김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당원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툴툴 털고 일어나 쾌유하길 기원하며 그러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양숙 여사도 이날 이희호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현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이희호 여사와 김홍업 전 의원, 홍걸씨 등 가족과 박지원 의원, 최경환 비서관 등이 김 전 대통령 곁을 지키며 병세를 지켜보고 있다.

또,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권노갑 전 의원과 김옥두 전 의원, 박선숙 의원, 박준영 전남지사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이날 병원을 속속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셋값 폭등 막자"

민주 전·월세 인상 제한 법안 마련키로

민주당은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시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있지만 신규계약이나 재계약시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한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월세액이나 전세보증금을 주거비용으로 인정, 가구당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평균 소득의 3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연간 120만원씩 지원하는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 대책으로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로 정책전환 ▲취득세 및 거래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유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조기당권 경쟁 불붙나

박 대표 재보선 출마… 지도체제 변화 관심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10월 경남 양산 재선거에 출마키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지도체제 변화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박 대표의 대표직 유지하면서 출마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대표직을 갖고 출마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친박(친 박근혜) 측은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 전면 복귀를 가급적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춘다는 복안에서 박 대표가 대표직을 갖고 출마, 현 지도체제에 변화가 없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10월 재보선 전체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비화, 여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박 대표가 이번 주 중반이 대통령을 만난 뒤 이달 중순께 전격적으로 대표직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여권 관계자는 9일 전했다.

그렇게 될 경우 향후 관심은 자연스럽게 여당 대표의 공백에 따른 지도체제 개편 논의가 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몽준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가 가능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벌써 10월 재보선?

경기 안산 상록을·경남 양산·강릉 등 3곳

박희태 대표 등 거물급 출마 채비 '빅매치'

10월 재보선 분위기가 일찌감치 달아오르고 있다. 9일 현재까지 확정된 10월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은 경기 안산 상록을, 경남 양산, 강원 강릉 등 3곳에 불과하지만, 거물급의 귀환과 빅매치 성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남 양산=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양산에 전셋집을 얻는 등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김양수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3명이 이미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또 친박 후보임을 내세우고 있는 유재명 전 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공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친노 인사를 중심으로 한 야권 대연합 여부도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영입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이며,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송인배 전 청와대 시민사회조정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안산 상록을=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유일한 재선거 지역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진동 전 안산 상록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수도권 선거가 갖는 파급력을 감안,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 특보를 비롯한 거물급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안산 상록을 탈환을 내건 민주당에서는 김재목 안산 상록을 지역위원장이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여기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최고위원이나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임종인 전 의원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강릉=전통적인 한나라당의 텃밭으로 친이, 친박 인사 간, 또한 청와대 한식구간 물밑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엽 전 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으며, 청와대 김해수 정무비서관, 권성동 법무비서관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릉에서 8, 14, 16대 의원으로 당선됐던 최돈웅 전 의원이 복귀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에서는 홍준일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의 이름도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